



## 吳越王 錢弘俶의 佛舍利信仰과 莊嚴

Sarira Worship and Its Remains of Qian Hong-Shu, the King of Wuyue, China

---

저자 (Authors)	周昞美 Joo Kyeongmi
출처 (Source)	<a href="#">역사와경계 61</a> , 2006.12, 57-85 (29 pages) <a href="#">History &amp; the Boundaries 61</a> , 2006.12, 57-85 (29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부산경남사학회</a> Pusan-Kyungnam Historical Societ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806260">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806260</a>
APA Style	周昞美 (2006). 吳越王 錢弘俶의 佛舍利信仰과 莊嚴. 역사와경계, 61, 57-8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30 15:43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 吳越王 錢弘俶의 佛舍利信仰과 莊嚴

---

周 旻美 | 부경대학교 사학과

stellar6@hanafos.com

## I. 머리말

錢弘俶은 928년부터 988년까지 살았던 중국 吳越國의 마지막 군왕이다. 그는 10세기의 유명한 불교 후원자로서, 당시 수많은 승려와 사찰들을 후원했다. 그의 불교 후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인도의 阿育王을 본받아 만든 錢弘俶 八萬四千塔이다. 그가 발원하여 만든 팔만사천탑은 현재까지도 중국 및 일본에 여러 점 남아 있으며, 팔만사천탑 안에 봉헌했다고 전해지는 『一切秘密如來全身寶篋印陀羅尼經』(이하 보협인경으로 약칭)은 고려 및 일본의 사리신앙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錢弘俶 八萬四千塔은 錢弘俶塔, 錢弘俶 金塗塔, 寶篋印塔, 阿育王塔 등으로 불리우는 독특한 형식의 탑이다(도 1).<sup>1)</sup>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

---

1) 본고에서 사용하는 ‘錢弘俶塔’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탑의 형식을 가리킨다. 물론 錢弘俶이 발원한 팔만사천탑들은 모두 錢弘俶塔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줄여서 錢弘俶塔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전홍숙이 발원하지 않



〈도 1〉 銅製 錢弘俶塔. 955년. 높이 18.6cm. 日本 福岡 誓願寺 소장.

은 학자들이 연구해왔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錢弘俶塔 형식이 보협인경을 중심으로 한 법사리신앙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왔기 때문에,<sup>2)</sup> 발원자인 錢弘俶과 그의 사리신앙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錢弘俶은 法舍利信仰뿐만 아니라 眞身舍利를 비롯한 身舍利信仰과 莊嚴에도 관심을 기울여 후원하였다. 그중에서도 2000년 발굴된 雷峰塔 출토 불사리장엄구는 錢弘俶의 만년기에 발원된 대표적인 身舍利莊嚴具이다. 뇌봉탑에서는 소위 ‘錢弘俶塔’ 형식을 따라 제작된 은제 소탑이 사리장엄구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러한 형식의 소탑이 보협인경과 관련된 법사리신앙과 장엄에만 사용되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錢弘俶의 가계 및 생애를 간단히 고찰한 후, 錢弘俶이 발원한 錢弘俶 팔만사천탑을 비롯한 여러 불사리장엄구들을 중심으로 그의 사리신앙과 장엄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sup>3)</sup> 그리하여 錢弘俶이

은 탑이라도 錢弘俶塔 형식을 따라서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가급적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錢弘俶塔 형식’과 ‘錢弘俶 發願 塔’은 구별하여 사용하겠다.

- 2) 錢弘俶塔 형식 및 도상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安眞鏞, 『寶篋印塔에 관한 研究』(서울: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0) 및 周昇美, 「중국 浙江省 杭州 雷峰塔의 佛舍利莊嚴」, 『불교미술사학』 4 (2006. 11) 343~346쪽 등이 있다. 일본 및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이에 대한 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져 왔으며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논고로는 다음 글들을 참조할 수 있다. 小野玄妙, 「吳越王 錢弘俶敬造金塗塔私考」, 『佛教の美術及び歴史』(東京: 佛書研究會), 617~640쪽; 岡崎讓治, 「錢弘俶八萬四千塔考」, 『佛教藝術』 76 (1970. 7), 111~125쪽; 關根俊一, 「錢弘俶八萬四千塔について」, *Museum* 441 (1987. 12), 12~20쪽; 金申, 「吳越國王造阿育王塔」, 『東南文化』(2002. 4), 46~51쪽.
- 3) 7-8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불사리장엄은 승배의 대상에 따라 크게 부처의 遺身인 身舍利를 공양하는 身舍利莊嚴과 남긴 말씀인 經典을 공양하는 法舍利莊嚴으로 나누어 진다. 불사리의 개념에 대해서는 주경미, 『중국 고대 불사

는 개인 발원자의 사리신앙이 당시 미술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錢弘俶의 발원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錢弘俶塔 형식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불사리장엄 방식들은 이후 송대 및 고려 불교 미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錢弘俶 발원 사리장엄에 대한 연구는 개인 발원 佛事의 차원을 넘어서서 중국 중세 불사리장엄 및 불교미술 연구, 한중 및 한일 불교관계사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된다.

## II. 오월왕 錢弘俶의 家系 및 生涯

### 1. 오월왕의 가계

오월국은 錢鏐(852-932)가 창건한 중국 절강성 지역의 小國이다.<sup>4)</sup> 錢鏐는 杭州 臨安縣 출신으로, 字는 具美이다.<sup>5)</sup> 당나라 말기에 황소의 난 및 董昌의 난 등 진압에 참여하여 공훈을 세웠으며, 절강성 일대를 평정하여 景福 2년(893) 鎮海軍節度使 겸 潤州刺史가 되었다. 이후 天復 2년(902) 越王에 봉해지고, 天祐元年(904) 吳王에 봉해졌다. 後梁 태조가 즉위한 후 908년 錢鏐는 吳越王 겸 淮南節度使에 봉해졌다.<sup>6)</sup> 오

리장엄 연구』(일지사, 2003), 14~21쪽 참조.

- 4) 오월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舊五代史』 卷 133, 世襲列傳 第 2; 『新五代史』 卷 67, 吳越世家 第 7, 錢鏐條; 范炯·林禹 撰, 『吳越備史』 全卷(北京: 中華書局, 1991) 참조. 여기에서 인용한 『吳越備史』는 欽定四庫全書의 일부로서 북경 中華書局에서 간행한 1991년본이며, 이하 인용문은 모두 『吳越備史』로 약칭한다. 오월국의 불교 및 불교 미술의 전반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阿部肇一, 『中國禪宗史の研究』(東京: 誠信書房은, 1963), 81~176쪽; Songun Choe, "Buddhist Sculpture of Wu Yüeh, 907-978: Chinese Sculpture of the Tenth Century", Doctoral Thesis of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1991); 崔聖銀, 「唐末五代 佛教彫刻의 傾向」, 『美術史學』 IV(미술사학연구회, 1992), 161~191쪽.
- 5) 「武肅王姓錢氏諱鏐字具美杭州安國縣人…大中六年壬申二月十有六日生…」 『吳越備史』 卷 1, 25쪽.
- 6) 錢鏐의 생애에 대해서는 『吳越備史』 卷 1 「武肅王」條 및 王建華, 『錢鏐與西湖』(杭州: 杭州出版社, 2005) 참조.

월국의 역사는 錢鏐가 오월왕에 봉해진 908년부터 5대왕 錢弘俶이 송에 귀순하는 978년(송 太平興國 3년)까지의 70년에 해당하지만, 오월국의 문화는 錢鏐가 절강성 일대에서 세력을 얻기 시작한 9세기말부터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錢鏐는 후당 莊宗(923-925 재위)에게서 玉冊과 金印을 받은 후 스스로 오월국왕을 칭하고 신라, 발해 및 海中諸國에게 사신을 보냈다.<sup>7)</sup> 이후 長興 3년(932) 3월에 81세의 나이로 죽었으며 시호는 武肅王이다.<sup>8)</sup>

錢鏐의 사후, 오월국의 왕위는 그의 7번째 아들 錢元瓘이 계승하였다. 제2대왕 錢元瓘은 字가 明寶이며 모친은 晉國昭懿太夫人 陳氏이다. 唐 光啓 3년(887) 11월 12일생으로 항주에서 태어났다. 天福 6년(941) 8월 병으로 55세의 나이에 죽었으며 시호는 文穆王이다.<sup>9)</sup>

錢元瓘이 죽고 오월국의 제3대 왕에 오른 것은 錢元瓘의 6번째 아들 錢弘佐이다. 원래 錢元瓘은 魯國夫人 鄭氏 소생인 5번째 아들 孝獻世子 錢弘傳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으나 孝獻世子는 940년 4월 16세의 나이로 죽었다.<sup>10)</sup> 그리하여 그 아우인 錢弘佐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錢弘佐의 字는 元祐이며, 모친은 吳越國 仁惠夫人 許氏이다. 天成 3년(928) 7월 26일생으로, 왕위에 오를 당시의 나이는 13세였다. 錢弘佐는 7년간 왕위에 있다가 開運 4년(947) 20세의 나이에 죽었으며 시호는 忠獻王이다.<sup>11)</sup>

錢弘佐의 뒤를 이어서 오월국의 제4대왕이 된 것은 錢弘佐의 아우 錢弘侗이다. 錢弘侗은 魯國夫人 鄭氏의 아들로 錢元瓘의 7번째 아들이었다. 그는 즉위 직후 대장 胡進思의 반란으로 폐위되었으며, 胡進思는 그의 아우인 錢弘俶를 제5대왕으로 즉위시켰다. 錢弘侗의 시호는 忠遜王이다.<sup>12)</sup> 제5대왕 錢弘俶는 948년 1월 20세의 나이에 왕위에 즉위하

7) “唐莊宗入洛 鏐遣使貢獻求玉冊…既而許之 乃賜錫玉冊金印 鏐因以鎮海等軍節度授其子元瓘 自稱吳越國王…遣使冊新羅渤海王海中諸國 皆封拜其君長.” 『新五代史』卷 67, 『吳越世家』第七 錢鏐條.

8) “長興三年 鏐卒 年八十一 諡曰武肅.” 위의 책, 『吳越世家』第七 錢鏐條.

9) 錢元瓘의 생애에 대해서는 『吳越備史』卷 2, 『文穆王』條 참조.

10) “(庚子五年四月) 是月甲子世子宏傳薨.” 위의 책, 193쪽. 錢弘傳의 생애에 대해서는 위의 책, 193-193쪽 참조. 『吳越備史』에는 錢弘傳을 비롯한 이들 형제들의 이름이 전부 ‘弘’자 대신 ‘宏’자로 써여 있다.

11) 錢弘佐의 생애에 대해서는 위의 책, 卷 3, 『忠獻王』條 참조.

12) 錢弘侗의 생애에 대해서는 위의 책, 卷 3, 『忠遜王』條 참조.

였으며, 이후 978년 송에 귀순하였다. 錢弘俶의 귀순과 함께 오월국의 역사는 끝난다.

오월국의 왕 중에서 錢弘佐와 錢弘侗 등 錢弘俶의 先王이자 형제들은 짧은 기간동안 재위하였고 어린 나이에 죽었다. 그렇지만 대체로 전씨 왕조의 통치 기간 동안 오월국은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된 시절을 보냈다. 전씨 왕조는 錢鏐부터 錢弘俶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교를 신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鄞縣 阿育王寺의 阿育王塔을 비롯하여 여러 사찰과 승려들의 후원에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가풍을 이어 錢弘俶은 수많은 불사를 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오월국의 제5대왕이자 마지막 왕인 錢弘俶의 생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고찰하겠다.

## 2. 錢弘俶의 생애

錢弘俶은 天成 4년(928) 己丑 8월 25일 오월의 3대왕인 文穆王 錢元瓘의 9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共懿太夫人 吳氏이다. 台州刺史를 지내다가 배다른 형인 錢弘侗이 胡進思에 의해 폐위된 후 乾祐元年(948) 오월왕에 즉위하였다.<sup>13)</sup>

錢弘俶의 부친과 조부는 모두 불교의 후원에 힘썼고, 그러한 가풍을 이은 錢弘俶도 일찍부터 불교를 후원했다. 錢弘俶은 台州刺史로 있을 때부터 法眼宗의 승려인 유명한 天台德韶와 교유를 맺고 있었고,<sup>14)</sup> 왕에 즉위하던 해에는 德韶를 자신의 國師를 삼고 제자의 예를 행했다.<sup>15)</sup> 그 외에도 錢弘俶은 道潛, 清偉, 紹巖, 延壽 등 여러 승려들과 지속적으

13) 錢弘俶의 생애에 대해서는 『新五代史』 卷 67, 『吳越世家』 第七 錢鏐條 및 『吳越備史』 卷 4, 『大元帥吳越國王』條, 『東都事略』 卷 130, 本紀三 및 卷 27, 列傳七 참조.

14) “時吳越忠懿以國王子刺台州 嚮師之名延請問道…” 『景德傳燈錄』 卷 25, 『天台德韶國師』條, T2076, 51:407a-b. T…는 『大正新修大藏經』의 수록 번호와 권:쪽 표시임. 이하에서는 『大正新修大藏經』의 명칭을 생략하고 T…로 서술함.

15) “乾祐元年 吳越王錢淑 奉天台沙門德韻 爲國師 申弟子之禮.” 『佛祖統紀』 卷 42, T2035, 49:392a. 『佛祖統紀』의 원문에는 德韻으로 나오지만, 이는 아마도 천태산의 승려 德韶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天台德韶의 생애에 대해서는 『景德傳燈錄』 卷 25, 『天台德韶國師』條, T2076, 51:407a-410b 참조.

로 교류하고 후원했다.

廣順元年(951) 後周 太祖가 즉위하여 錢弘俶에게 諸道兵馬都元帥를 제수하였고,<sup>16)</sup> 이듬해(952) 2월 다시 天下兵馬元帥를 제수하였다.<sup>17)</sup> 그 해 6월 錢弘俶의 어머니인 順德太夫人 吳氏가 죽어서 8월에 錢塘 慈雲嶺의 서쪽에 장사지냈다. 順德太夫人은 錢塘 사람으로 胡琴을 잘 타고 성품이 자애롭고 道교(黃老學)를 숭앙했다고 한다. 시호는 恭懿夫人이다.<sup>18)</sup>

顯德元年(954) 後周 世宗이 즉위했다. 이 해 錢弘俶은 慧日永明寺를 창건하고 道潛禪師를 모셔왔다.<sup>19)</sup> 또 5월에는 모친 共懿太夫人의 동상을 2개 주조하여 奉國寺와 金地寺 등 비구니 사찰 두 곳에 봉안했다.<sup>20)</sup>

顯德 2년(955) 4월과 9월 두차례에 後周의 世宗이 폐불을 단행하였다. 그해 오월국에는 윤9월 정유일에 世子 錢惟濬가 태어났고,<sup>21)</sup> 이즈음 고려 승려 圓空國師가 건너와서 永明寺의 延壽禪師 아래에 주석하였다.<sup>22)</sup> 錢弘俶이 팔만사천탑을 제작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라고 추정되는데, 현존하는 錢弘俶塔의 상당수가 이 시기에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佛祖統紀』에 의하면 錢弘俶 八萬四千塔은 宋 太祖 乾隆元年(960)을 기준으로 약 10년전인 950년경부터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sup>23)</sup> 그러나 현존하는 유물 중에는 955년보다 이른 시기의 작품이 거의 없으므로 錢弘俶의 팔만사천탑 조성의 시작은 이즈음부터로 볼 수 있다.

960년 宋이 건국하면서 錢弘俶은 宋과 수교하기 시작했다. 이 해에 宋 太祖는 錢弘俶에게 ‘天下兵馬大元帥’라는 직책을 제수하였으며,<sup>24)</sup> 이

16) 『吳越備史』 卷 4, 249쪽.

17) 위의 책, 252쪽.

18) 順德太夫人의 생애에 대해서는 위의 책, 253~254쪽 참조.

19) “漢南國王錢氏命入王府受菩薩戒 造大伽藍號慧日永明 請以居之.” 『宋高僧傳』 卷 13, T2061, 50:788c.

20) “夏五月辛巳王命鑄王妣恭懿太夫人銅容二致于奉國金地二尼寺.” 『吳越備史』 卷 4, 256쪽.

21) “閏月丁酉世子惟濬生.” 『吳越備史』 卷 4, 257쪽.

22) 李智冠, 「原州 居頓寺 圓空國師 勝妙塔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 2)』(社團法人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5), 235~237쪽.

23) “(建隆元年 十月)…吳越王錢俶天性敬佛 慕阿育王造塔之事用金銅精鑄造八萬四千塔 中藏寶篋印心呪經(此經呪功云 造像造塔者 奉安此呪者 卽成七寶 卽是奉藏三世如來全身舍利) 布散部內 凡十年訖功(今僧寺俗合有奉此塔者).” 『佛祖統紀』 卷 43, T2035, 49:394c.

24) 『吳越備史』 卷 4, 265쪽.

후 錢弘俶은 이름의 가운데 ‘弘’자를 빼고 ‘錢俶’으로 표기하기 시작하였다.<sup>25)</sup> 한편 이 해에 錢弘俶은 德韶國師와 義寂法師를 위해 전란중에 사라진 천태종의 경전을 고려에서부터 구해와서 중국의 천태종을 부활시켰다. 이때 고려에서 경전을 가지고 온 승려가 諦觀이다.<sup>26)</sup> 또한 延壽禪師를 불러 靈隱寺를 중창하였는데,<sup>27)</sup> 靈隱寺 대웅보전 경내의 동서쌍탑은 당시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杭州 개화사 六和塔의 창건도 역시 錢弘俶의 후원을 받아 당시 연수선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창건연대에 대해서는 970년설과 971년설이 있다.

乾德 2년(964) 2월 錢弘俶은 송으로부터 ‘天下兵馬都元帥’라는 직책을 제수받았다.<sup>28)</sup> 4월에는 성의 남쪽에 있는 寶塔寺를 중건하고, 역대 오월왕인 武肅王, 文穆王, 忠獻王의 동상을 주조하여 절에 공양하였다.<sup>29)</sup> 이듬해 8월에는 다시 성북쪽에 寶塔寺를 중건했고,<sup>30)</sup> 968년에는 성 서쪽에 奉先寺를 창건하였다. 고려의 寂然國師 英俊이 永明寺의 延壽禪師 문하에 유학한 것도 이즈음의 일이다.<sup>31)</sup>

開寶 8년(975) 錢弘俶은 宋이 南唐을 정벌하는 것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았고 왕비 孫氏가 ‘吳越王妃’로 봉해졌다. 그 해 錢弘俶은 송에 입조하였다.

太平興國 2년(977) 왕비 손씨가 사망하였고, 錢弘俶은 9월에 다시 송에 입조하였다. 항주의 保俶塔(976)과 雷峰塔이 건립된 것은 이 시기이다.

太平興國 3년(978) 錢弘俶은 송에 다시 입조하여 나라를 송에 바치고

25) 錢弘俶의 이름에서 ‘弘’자를 제하게 된 것은 송 황실을 예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후 宋代 史書나 金石文에는 이후 錢弘俶의 명칭이 모두 錢俶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분고에서는 원문을 인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래 이름인 錢弘俶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26) “初天台教卷經五代之亂殘毀不全 吳越王俶遣使之高麗日本以求之 至是高麗遣沙門諦觀持論疏諸文至螺溪謁寂法師 一宗教文復還中國.” 『佛祖統紀』 卷 43, T2035, 49:394c-395a.

27) “建隆元年忠懿王請入居靈隱山新寺爲一世.” 『景德傳燈錄』 卷 28, T2078, 51:421c.

28) 『吳越備史』 卷 4, 270쪽.

29) “夏四月重建城南寶塔寺成鑄武肅王文穆王忠獻王銅容供於寺.” 위의 책, 270쪽.

30) “八月癸卯重建寶塔寺于城北.” 위의 책, 271쪽.

31) 許興植, 『靈巖寺 寂然國師碑』, 『高麗佛教史研究』(一潮閣, 1986), 617~618쪽.

淮海國王에 봉해졌다.<sup>32)</sup> 오월국의 역사는 이때 끝나게 된다. 이후 錢弘俶의 행적은 宋史에서 찾아 볼 수 있다.

984년 錢弘俶은 漢南國王에 봉해졌으며, 987년에는 다시 南陽國王 景 武勝軍節度使가 되었다. 988년 鄧王에 봉해져서 鄧州署館에서 거주하다가 그 해 8월 24일에 사망하였다. 자식은 惟浚, 惟治, 惟渲, 惟灑, 惟潛, 淨照, 惟演, 惟濟 등 아들 8명과 7명의 딸을 두었다. 葬地는 河南省 洛陽 賢相鄉 陶公里이며, 990년 1월 15일에 장례를 치렀다.<sup>33)</sup>

錢弘俶은 전씨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서, 송에 입조하기 전까지 절강성 지역에서 여러 개의 탐과 경당을 건립하고 많은 승려들을 후원하였다. 특히 그의 후원을 받은 德韶와 延壽 등은 天台思想을 받아들인 禪宗 계열의 法眼宗 승려들이며, 이들에게 수많은 고려의 승려들이 유학을 왔던 점이 주목된다. 북송으로 귀순한 이후 錢弘俶의 佛事에 대해서는 그다지 자세하지 않지만, 당시 그가 송에 입조할 때 대동한 승려 贊寧이 북송 초기의 불교계에서 크게 활약을 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sup>34)</sup> 북송 초기의 불교계에서도 그의 영향력은 상당히 컸을 가능성이 있다.

그의 불사리신앙과 관련된 것으로는 크게 錢弘俶 팔만사천탑의 조성 과 절강지역의 여러 대탑의 건립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탐내 출토품을 중심으로 錢弘俶의 불사리신앙과 장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III. 오월왕 錢弘俶 발원의 불사리장엄구

錢弘俶 발원 사리장엄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팔만사천탑의 조성이다. 錢弘俶 팔만사천탑의 조성 원인은 보통 인도 阿育王 고사의 영향으로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탑들은 내부에 身舍利 대신 法舍利

32) 『宋史』 卷 4, 本紀 第4 太平興國三年條 및 『東都事略』 卷 24, 列傳 7, 錢俶條.

33) 錢弘俶의 말년에 대해서는 『宋史』 卷 480, 列傳 第 239, 世家 3, 吳越錢氏條 및 吳建華, 「吳越國王錢俶墓志考釋」, 『中原文物』(1998. 2), 84~90쪽 참조.

34) 贊寧(919-1002)은 절강성 출신으로 『宋高僧傳』과 『大宋僧史略』 등의 저서를 남긴 북송 초기의 유명한 승려이다. 錢弘俶이 송에 귀순할 당시 贊寧은 兩浙僧統, 즉 오월국의 승통이었으며, 그로 하여금 무현 아육왕탑을 송으로 가져가게 했다. “吳越王俶奉版圖歸朝 令僧統贊寧奉釋迦舍利塔入見於滋福殿.” 『佛祖統紀』 卷 43, T2035, 49:397c.

인 보협인경을 봉안한 공양소탑이기 때문에 阿育王 조탑 고사를 단순히 모방했다기보다는 阿育王 고사를 錢弘俶 나름대로 변화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錢弘俶이 발원한 대표적인 大塔으로는 杭州의 六和塔, 保俶塔, 雷峰塔 등이 있는데, 이 탑들은 내부에 身舍利를 봉안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사리장엄구가 출토된 것은 뇌봉탑 뿐이다. 그 외에 사리장엄구가 발견된 湖州의 飛英塔과 蘇州의 虎丘塔도 역시 錢弘俶年間に 건립된 탑으로, 양식과 규모로 볼 때 錢弘俶의 후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도 2〉 六和塔. 吳越國. 中國 浙江省 杭州 소재.

六和塔은 전당강을 내려다보는 매우 뛰어난 경승지에 위치한 거대한 8각 13층탑이다(도 2). 외부는 목조탑 형식을 취하고 내부는 7층으로 구성된 혼합식 전탑이다. 이 탑의 창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보통 延壽禪師가 錢弘俶의 후원으로 970년 혹은 971년에 사리를 봉안하고 창건했다고 한다. 그러나 창건기의 탑은 12세기 초에 훼손되었으며 현재의 모습은 宋 紹興 26년(1156) 승려 智曇가 중건한 것이다.<sup>35)</sup> 탑 내부가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리장엄구

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한편 탑의 내벽에는 四十二章經을 비롯하여 金剛經, 觀音經 등을 새겨 넣은 작은 석비가 여러 점 끼워져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창건기인 오월국 때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杭州 寶石山 정상에 서 있는 8각 7층전탑인 保俶塔은 寶石塔, 혹은 應天塔, 寶所塔이라고도 한다. 이 탑은 太平興國 元年(976) 錢弘俶이 송에 입조를 할 때 평안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면서 만들었다고도 하며, 혹은 사리를 감응해서 건립한 탑이라고도 전한다.<sup>36)</sup> 이 탑에 대해서는 아

35) 王建華, 『錢鏐與西湖』, 162~163쪽.

36) 위의 책, 159쪽.

직까지 별다른 연구가 없고 탑내부도 조사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錢弘俶 때에 건립된 신사리 신앙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탑으로서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錢弘俶 八萬四千塔과 현재까지 알려진 錢弘俶 관련 사리장엄구에 대해서 발원시기 순으로 고찰하겠다.<sup>37)</sup>

## 1. 錢弘俶 八萬四千塔

錢弘俶이 발원한 팔만사천탑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현존하는 유물도 최근 발굴자료까지 합치면 약 30여점 이상이 알려져 있다(<표 1> 참조).<sup>38)</sup>

『佛祖統紀』에 의하면 오월왕 錢弘俶은 인도 阿育王의 조탑 고사를 따라서 금속으로 팔만사천탑을 만들었다고 한다. 탑 내에는 寶篋印心呪經을 매납하였으며, 약 10여년에 걸쳐서 部內에 유포하였다. 탑이나 상을 만드는 사람이 보협인경을 봉안하면 곧 칠보를 이루게 되고 三世如來의 全身舍利를 봉안하는 것이 된다고 하여 보협인경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탑들은 여러 사찰에 나누어져 봉안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39)</sup>

그러나 錢弘俶 팔만사천탑은 팔만사천탑이라는 숫자상의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아육왕의 조탑 고사와 공통성을 찾기 어렵다.<sup>40)</sup> 우선 錢弘

---

37) 절강성에서는 錢弘俶塔 형식으로 만들어진 불사리장엄구가 여러 점 출토되었는데, 錢弘俶 재위기에 만들어졌으나 발원자가 확실히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그러한 예로는 蘇州 瑞光塔 출토 금동탑, 蘇山市 祇園寺 동서석탑 출토 銅塔 등이 있다.

38) 이 표에는 錢弘俶과 관련된 명문이 있어서 錢弘俶 발원 팔만사천탑의 일부로 추정되는 작품만 기록하였다. 錢弘俶 팔만사천탑과 동일한 형식이지만 錢弘俶 팔만사천탑과 관련된 명문이 없거나 신사리장엄구로 사용된 예들은 이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예외적으로 일본에 전래되었던 팔만사천탑의 일부로 추정되는 일본 大阪 來迎寺 소장품은 표에 포함하였다.

39) 원문은 T2035, 49:394c 참조.

40) 阿育王은 기원전 3세기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Aśoka)왕으로서, 그의 팔만사천탑 조성 및 의의에 대해서는 周昞美, 『中國 古代 皇室發願 佛舍利莊嚴의 정치적 성격』, 『東洋學』 33(2003. 2), 363~367쪽 참조. 아쇼카왕의 생애에 대해서는 John S. Strong, *The Legend of King Aśoka: A Study and Translation of the Aśokāvadāna*(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참조. 여기에서는 아쇼카왕 대신 阿育王으로 통칭

倣이 발원하여 만든 팔만사천탑은 금속제 소탑이며, 내부에 身舍利 대신 法舍利인 보협인경을 안치한 점이 특색이다.<sup>41)</sup> 그에 비해 아육왕의 팔만사천탑은 석가모니 부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탑이다.

<표 1> 현존하는 錢弘俶 八萬四千塔 목록

번호	재질	출토지	소장처	연대	명문	번호
1	동탑	일본 那智經冢	일본 東京國立博物館	乙卯(955)	O	化
2	동탑	미상	일본 福岡 誓願寺	乙卯(955)	O	化
3	동탑	미상	일본 京都 金胎寺	乙卯(955)	O	仁
4	동탑	미상	일본 大阪 金剛寺	乙卯(955)	O	向
5	동탑	미상	일본 奈良國立博物館	乙卯(955)	O	安
6	동탑	미상	東京 永青文庫	乙卯(955)	O	安
7	동탑	미상	兵庫 黒川古文化研究所	乙卯(955)	O	乙
8	동탑	미상	일본 京都 개인소장	乙卯(955)	O	
9	동탑	미상	大阪 來迎寺	乙卯 추정	X	
10	동탑	한반도 남부	미상	乙卯(955)	O	德
11	동탑	절강성 영과 천봉탑 탑정	天一閣博物館	乙卯(955)	O	
12	동탑	절강성 송덕현 송복사서탑 탑정	절강성박물관	乙卯(955)	O	巳
13	동탑	절강성 금화 만불탑 탑기(11기)	절강성박물관	乙卯(955)	O	
14	동탑	절강성 해녕 智標塔 지궁(2기)	절강성박물관	乙卯(955)	O	
15	동탑	복건성 연강현 소식탑내	복건성박물관	960년이전	O	
16	철탑	미상	천태산 국청사	960년이전	O	
17	철탑	절강성 소흥시	소흥시문물국	乙丑(965)	O	
18	철탑	하북성 정지사 지궁	하북성박물관	乙丑(965)	O	
19	철탑	절강성 서안현 해광탑 지궁	절강성박물관	乙丑(965)	O	
20	철탑	절강성 금화 만불탑 탑기(4기)	절강성박물관	乙丑(965)	O	
21	철탑	절강성 황암 영석사탑	황암시박물관	乙丑(965)	O	

한다.

- 41) 보협인경에 대해서는 千惠鳳, 「高麗初期刊行의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 『中央大學校圖書館學報』 2(1973), 1~47쪽 참조. 보협인경은 唐代 772년 이전 不空에 의해서 漢譯되었다. 보협인경의 원문은 T1022, 19:710-712 참조.

현존작품을 통해서 보면 錢弘俶 팔만사천탑은 일반 탑과는 다른 독특한 형식을 하고 있다(도 1). 방형 기단의 단층 방형탑으로, 탑신부四面에는 아치형의 龕안에 각각 薩埵太子本生, 尸毘王本生, 月光王本生, 快目王本生 등의 본생담이 부조로 새겨져 있다.<sup>42)</sup> 이들 본생담은 모두 『賢愚經』을 근거로 한 것이며, 간다라 지역의 4대 본생담과 관련이 있다. 한편 塔身 사방 위쪽에는 말의 귀 모양, 즉 馬耳形을 본뜬 네 개의 立飾이 있고, 탑신 중앙 위쪽에는 법륜과 보주가 있는 찰주가 세워져 있다. 출토유물의 경우에는 찰주가 훼손된 경우가 많으며, 사찰내 소장품의 경우에는 찰주를 복원한 예도 있다.

이러한 錢弘俶塔 형식의 기원은 보통 浙江省 鄞縣(현재 寧波) 阿育王寺에 소장되어 있던 阿育王塔을 본뜬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3)</sup> 鄞縣 阿育王塔은 南朝 때 慧達이 발굴한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小塔인데 현존하지는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鄞縣 阿育王塔의 탑신 四面의 본생담과 馬耳形 立飾이 있었다고 하므로, 錢弘俶塔 형식과 공통점이 많다. 이 탑의 제작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인도보다는 오히려 간다라 지역의 불탑형식이나 그리스 건축양식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다.<sup>44)</sup> 그러므로 이 탑은 아육왕탑으로 불리우긴 했지만, 실제 제작 연대는 아육왕 이후이며 제작지도 인도로 보기는 어려운 서역 전래품으로 추정된다.

鄞縣 阿育王塔은 일찍부터 오월국의 전씨 왕조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錢弘俶의 祖父인 錢鏐는 貞明 2년(916) 鄞縣 阿育王寺의 석가사리탑, 즉 阿育王塔을 가져와서 항주 羅漢寺로 맞이했는데, 밤중에 탑에서 放光하는 神異가 일어났다.<sup>45)</sup> 이 탑은 이후 錢弘俶이 宋에 귀순

42) 본생담 부조의 도상 해석 및 내용에 대해서는 周旻美, 『중국 浙江省 杭州 雷峰塔』, 356~360쪽 참조.

43) 錢弘俶塔 형식이 鄞縣 阿育王塔을 본따서 만들어진 형식이라는 것은 小野玄妙가 가장 먼저 논의했으며, 그 이후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설을 따르고 있다. 小野玄妙, 『吳越王錢弘俶敬造金塗塔私考』, 참조. 그 이후 제설에 대해서는 安眞鏞, 『寶篋印塔에 관한 연구』, 8~17쪽 참조.

44) 關根俊一, 『錢弘俶八萬四千塔』, 15~18쪽 및 小谷伸男, 『ガンダラ美術とクシャン王朝』(京都: 同朋舎出版, 1996), 278~289쪽.

45) “(貞明二年) 吳越王錢鏐遣沙門清外同弟錢鏐往四明阿育王山迎釋迦舍利塔船泊西

할 때 宋 皇室로 봉송되었으며, 송대 이후의 행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많으나 확실하지 않다.<sup>46)</sup> 아마도 錢弘俶은 당시 절강성 지역의 불교계에서 중요시되던 鄞縣 阿育王塔의 존재로 인하여 阿育王과 같이 팔만사천탑의 제작을 발원하였으며, 자신이 제작할 탑의 형태 또한 그 탑을 모델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錢弘俶은 鄞縣 阿育王塔과 같은 형태의 소탑을 대량으로 복제하여 유포한 것이다.

현존하는 錢弘俶 팔만사천탑들을 살펴 보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제 1군은 96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대부분 955년의 명문을 가진 銅塔이다. 명문은 탑신 내부에 새겨진 경우가 많으며 발원자는 ‘錢弘俶’으로 표기되어 있다. 명문의 내용 중에서 판독이 어려운 부분이



〈도 3〉 鐵製 錢弘俶塔. 965년. 높이 16.7cm. 河北省 靜志寺 地宮 출토. 定縣博物館 소장.

있는 복건성 출토품이나 천태산 국청사 소장품에는 ‘錢弘俶’이라는 명칭이 보이기 때문에 960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탑의 사방에는 아치형의 불감에 본생담에 표현되어 있으며, 탑 모퉁이 사방에는 馬耳形立飾이 4개 서 있는데, 제 1군의 경우에는 단 칸으로 구획되어 신장상과 불상을 배치했다. 제 1군의 작품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전하고 있다(도 1).

제 2군은 乙丑年 즉 965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대부분 鐵塔이다. 명문은 탑의 바닥면에 새겨져 있으며, 발원자는 ‘錢俶’으로 표기되어 있다. 제 2군의 경우에는 중국 각지의 탑 지공에서 출토되는 예가 많다. 역시 탑 사방에 본생담이 표현되어 있고, 馬耳形立飾이 4

陵塔夜放光浙江如畫王躬迎至羅漢寺廣陳供養.” 『佛祖統紀』 卷 42, T2035, 49:390c.

46) 村田治郎, 『中華における阿育王塔の成立』, 『事迹と美術』 390 (1968. 12), 362~376쪽.

개 있는데, 立飾은 상하 두 칸으로 구획하고 각 칸마다 신장상 대신 불전고사를 새긴 점이 제 1군과는 다르다(도 3).

현존하는 작품의 대부분이 955년, 혹은 965년에 제작되었기 때문에, 錢弘俶의 팔만사천탑은 적어도 2회 이상에 걸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역사를 살펴 보면, 955년에는 後周 世宗이 폐불을 단행했으며 錢弘俶의 장자가 태어났다. 965년에는 별다른 일이 없지만, 964년에는 송에서 천하병마도원수를 제수받았고 역대 오월왕의 동상을 제작한 점이 주목된다. 즉 錢弘俶 팔만사천탑이 집중적으로 제작된 두 해는 모두 국내의 정세 변화의 주요 기점이 되는 시기가 된다.

이제까지 錢弘俶 팔만사천탑의 성격은 錢弘俶이 전륜성왕으로서의 阿育王을 본받고자 만든 것으로만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錢弘俶의 생애와 당시 정세를 통해서 볼 때, 錢弘俶 팔만사천탑의 성격을 단순히 阿育王의 모방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錢弘俶과 阿育王의 팔만사천탑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많기 때문이다.

錢弘俶은 일찍부터 불교를 후원한 유명한 護佛王으로, 승려 및 사찰 후원, 탑의 건립, 경전 간행, 석굴사원 조성 등 여러 佛事를 행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국내외 정세로 볼 때 錢弘俶은 轉輪聖王을 자처하기는 어려운 小國의 왕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면에서는 阿育王과 매우 다르다. 오월국은 계속 중원의 왕조로부터 책봉을 받고 조공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송대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錢弘俶은 이상적인 군주로서의 阿育王을 모델로 삼고 阿育王 조탑 고사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자신을 전륜성왕으로 자처하거나 혹은 전륜성왕이 되기 위해서 팔만사천탑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阿育王 고사에서는 석가모니의 진신사리에 대한 신앙이 매우 중요하지만, 錢弘俶은 진신사리 대신 보협인경이라는 법사리를 넣은 소탑을 제작했으므로 역시 阿育王 고사와는 매우 다른 성격의 조탑 공양을 했다. 이 점도 역시 錢弘俶과 阿育王의 차이점이다.

錢弘俶의 팔만사천탑 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적 배경은 보협인경이었다고 추정된다. 唐代 不空이 漢譯한 이 경전은 雜密的인 성격이 강한데, 경전의 내용 중에는 이 경전과 다라니를 塔像에 안치하면 十方諸佛이 그 방처를 따라다니면서 모든 때에 신통력과 서원력으로 보

호해줄 것이라는 내용의 공덕이 설해져 있다. 형제들이 일찍 죽고 중원 왕조가 계속 바뀌는 어수선한 시기에 젊은 나이로 왕이 된 錢弘俶은 나라를 위해, 혹은 자신과 전씨 왕조를 위해 이 경전의 내용대로 보협인경을 봉안한 탑을 만들기 원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보협인경의 공덕에 기대하여 나라를 안정시키고 불법이 융성하기를 바라면서 보협인경을 봉안할 팔만사천탑을 만들었고, 그 탑의 모델을 전씨 왕조 초기부터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鄞縣 阿育王塔에서 찾았던 것이다. 즉 이 팔만사천탑은 錢弘俶의 호국적 성격의 법사리신앙을 표출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錢弘俶의 팔만사천탑은 공양소탑으로서, 탑이나 불당 내에 단독, 혹은 여러 개로 안치되기도 하고, 개인적인 공양품으로 소지되기도 했다. 이러한 팔만사천탑의 제작 목적은 보협인경에 의한 새로운 사리신앙과 鄞縣 阿育王塔을 닮은 공양소탑의 유포였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법사리의 봉안과 장엄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리신앙을 받아들인 것이며, 동시에 호국적 성격을 가진 사리신앙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다음으로는 전홍숙이 발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大塔內 사리장엄구에 대해서 고찰하겠다.

## 2. 湖州 飛英塔 출토 經函

浙江省 湖州市 塔下街에 있는 飛英塔은 안쪽은 석탑, 바깥쪽은 8각 5층의 목조 누각식탑이다. 이 탑에서는 1986년 외탑벽 가운데에서 『妙法蓮華經』 등 경전이 봉안된 나전경함을 비롯한 법사리장엄구가 출토되었다.<sup>47)</sup>

의함으로 사용된 나전경함은 복원 길이 40.3cm, 폭 20.8cm, 높이 23cm의 蓋頂形 長方形函으로, 표면에 螺鈿으로 團花文과 불보살상, 비천 등이 장식되어 있다. 함의 바닥면에는 “吳越國順德王太后吳氏謹捨寶 / 裝經函肆只人天台山廣福金文 / 院轉輪經藏永充供養 / 時□亥廣順元年

47) 湖州市飛英塔文物保管所, 「湖州飛英塔發現一批壁藏五代文物」, 『文物』(1994. 2), 52~57쪽.

十月日題紀”라는 명문이 있다.<sup>48)</sup> 즉 廣順元年(951) 오월국의 順德王太后 吳氏, 즉 錢弘俶의 모친이 천태산 광복금문원 전륜경장에 공양한 경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합은 처음부터 비영탑에 넣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으나, 飛英塔의 창건기에 이곳으로 가져와서 봉안된 것이다.

飛英塔의 건립연대는 북송 開寶年間(963-975), 즉 오월왕 錢弘俶이 재위하던 시기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법사리장엄구의 원래 발원자가 錢弘俶의 생모인 점으로 볼 때, 이 탑의 건립과 법사리장엄구의 봉안은 아마도 錢弘俶의 발원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 나전경합이 원래 소장처에서 비영탑으로 옮겨진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당시 경전을 탑내에 봉안하는 법사리신앙이 강남 지역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작품이다.

### 3. 蘇州 虎丘 云岩寺塔 출토 사리장엄구

江蘇省 蘇州市 虎丘 云岩寺塔은 虎丘塔이라고도 불리우는 거대한 8각 7층의 전탑으로 1956년 탑신 2층과 3층에서 각각 法舍利莊嚴具와 身舍利莊嚴具가 발견되었다.<sup>49)</sup> 虎丘塔의 건립 연대는 959-961년경으로 역시 오월왕 錢弘俶의 치세 기간에 해당한다.

제 2층 천공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는 法舍利莊嚴具이다. 장방형석함 안에서 木漆經函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妙法蓮華經』을 비롯한 7권의 경권이 봉안되어 있었다.

제 3층 천공에서는 石函과 鐵塔, 金瓶 등 3중으로 구성된 身舍利莊嚴具가 발견되었는데, 鐵塔의 형태는 錢弘俶塔 형식과 유사하여 주목된다(도 4). 이 철탑의 내부에는 사리가 들은 金瓶이 있었고, 철탑을 싸고

48) 위의 논문, 55쪽.

49) 호주 운암사탑 출토품에 대해서는 蘇州市文物管理委員會, 『蘇州虎丘云岩寺塔發現文物內容簡報』, 『文物參考資料』(1957. 11), 38~45쪽 및 『蘇州虎丘塔出土文物』(北京: 文物出版社, 1958) 참조. 여기에서는 사리장엄구 외에 공양구로 수많은 불교 조상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崔聖銀, 『中國蘇州 虎丘塔과 金華 萬佛塔出土 佛教彫刻』, 『考古美術史論』 2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1991. 12), 163~185쪽 참조.



〈도 4〉 鐵塔. 961년경. 높이 18.8cm. 江蘇省 蘇州 虎丘塔 3층 출토. 蘇州博物館 소장.

있던 비단에서는 “迦葉如來眞身舍利寶塔”이라는 목서명이 발견되었다.<sup>50)</sup> 즉 이 철탑은 錢弘俶塔 형식과 매우 유사하지만, 법사리장엄구가 아닌 가섭불의 사리를 공양한 신사리장엄구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錢弘俶塔 형식은 보협인경을 봉안하는 법사리장엄구로만 사

용된 것이 아니라, 신사리 봉안을 위한 장엄구이자 이상적인 사리소탑의 형식으로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虎丘塔 출토 사리장엄구 중에서 법사리장엄구의 경우에는 일부 개인 발원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지만,<sup>51)</sup> 신사리장엄구의 경우에는 발원자가 확실하지 않다. 탑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사리장엄구의 발원자는 아마도 당시 蘇州가 오월국의 치세에 있었으며 호구탑의 규모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전씨 왕조, 즉 錢弘俶과의 관련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虎丘塔에서는 법사리장엄구와 신사리장엄구가 각각 다른 층에서 출토되면서, 신사리를 모신 장엄구의 형태가 錢弘俶塔 형식을 따르는 새로운 탑형사리장엄구인 점이 특징이다.<sup>52)</sup> 강남지역에서 錢弘俶塔 형식의 신사리장엄구는 대체로 錢弘俶年間부터 크게 유행했다. 이러한 새

50) 蘇州市文物保管委員會, 위의 논문, 40쪽.

51) 經卷의 발원자로는 彭城縣君錢氏, 女弟子 錢氏, 弟子 楊公兒 등 여러 명이 알려져 있다. 위의 논문, 39쪽.

52) 탑형사리장엄구는 인도에서 시작되어 동아시아까지 전래된 사리장엄구의 한 유형으로, 보통 사리장엄구가 제작되던 당시에 유행하는 탑 형식을 따라서 신사리 봉안을 위한 사리장엄구로 제작된 것이다. 주경미, 「탑형 사리장엄구 - 건축 이미지의 공예적 변용」, 『미술사와 시각문화』 5 (2006. 10), 224~249쪽 참조.

로운 형식의 신사리장엄구의 등장 원인에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전홍숙 팔만사천탑의 제작으로 이러한 새로운 탑 형식이 강남지역에서 유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전씨 일가가 무현 아육왕탑을 후원하면서 그 탑의 형식이 이 지역에서 새로운 신사리장엄구 형식으로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이 두 가지 요인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형식의 신사리장엄구의 창안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 4. 杭州 雷峰塔 출토 불사리장엄구



〈도 5〉 銀塔. 971-977년 경. 높이 35.6cm. 杭州 雷峰塔遺址 出土. 천궁 봉안 추정.  
 〈도 6〉 파손 銀塔. 971-977년경. 杭州 雷峰塔遺址 出土. 천궁 봉안 추정.  
 雷峰塔 地宮 출토.

虎丘塔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전홍숙탑 형식의 탑형사리장엄구는 杭州 雷峰塔에서도 출토되어 주목된다. 浙江省 杭州市 西湖 기슭에 서 있는 雷峰塔은 皇妃塔, 黃皮塔, 西關塲塔이라고도 불리는데, 錢弘俶이 말년에 증창한 8각 다층 전탑이다. 1924년 9월 25일 완전히 무너져 폐허가 되었다가 2000년 발굴을 시작하여 2001년에는 지공이 정리되었다. 현재는 이 탑지 위에는 새로운 현대적 탑이 건립되어 있다. 雷峰塔은 출토유물과 문헌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971-977년경 錢弘俶이 그의 왕비를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sup>53)</sup>

雷峰塔에는 탑 지하 중앙부에 마련된 博築地宮에 신사리장엄구와 각종 공양구가 봉안되어 있었으며, 탑의 상층부에는 별도의 사리장엄구가 봉안되어 있던 천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궁과 천궁에 봉안되었던 사리장엄구는 모두 전홍숙탑 형식을 따른 탑형사리장엄구이다. 지궁에서 발견된 은탑은 이제까지 발견된 전홍숙탑 형식의 예들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본생담의 도상을 알 수 있는 작품으로 중요하다(도 5). 한편 천궁에 봉안되어 있던 은탑은 무너진 탑기에서 파손된 채로 발견되었다(도 6).

지궁 주위에서는 전돌 안에 경권을 봉안한 소위 藏經博과 石經片들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범사리장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藏經博이란 속이 빈 전돌의 한쪽 끝에 둥근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안에 경권을 봉안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雷峰塔 藏經博에서 발견된 경권 중에는 錢弘俁이 975년 발원한 『보협인경권』을 비롯하여 <塔圖> 등이 있다(도 7). 지궁 주위에서 발견된 경전 중에는 역시 보협인경이 가장 많기 때문에 錢弘俁의 사리신앙에서 이 경전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궁 주위에서 발견된 전돌의 명문 중에는 신미(971), 임신(972) 등의 기년명이 있어서 지궁 축조의 상한 연대를 알 수 있다.



〈도 7〉 보협인경권 앞부분. 乙亥(975년). 杭州 雷峰塔 藏經博 출토.

- 53) 雷峰塔 출토 유물에 대해서는 周昞美, 「중국 浙江省 杭州 雷峰塔」 및 다음 글 참조.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杭州雷峰塔五代地宮發掘簡報』, 『文物』 552 (2002. 5), 4~32쪽; 上同, 『雷峰遺珍』 (文物出版社, 2002); 上同, 『雷峰塔遺址』 (文物出版社, 2005).

지궁의 은탑은 盞頂形鐵函 안에 봉안되어 있었으며, 이 은탑의 내부에는 金棺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咸淳臨按志』를 비롯한 여러 기록에서는 뇌봉탑에 봉안된 사리가 佛螺髻髮이라고 전하기 때문에, 金棺에 이 사리가 봉안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 은탑은 전형적인 전홍숙탑, 특히 제 2군의 전홍숙탑 형식을 따르면서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소탑이다.

雷峰塔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 중에는 공양구의 일부에서 발원자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중심이 되는 은탑을 비롯한 사리장엄구에는 발원자에 대한 기록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호구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탑의 발원과 관련된 문헌사료가 풍부하며, 출토 유물의 성격에서도 錢弘俶, 혹은 오월국 왕실과의 관계 등이 보이기 때문에 雷峰塔 출토 사리장엄구도 역시 錢弘俶이 발원한 것으로 생각된다. 호구탑과 비교해 볼 때 또 한가지 주목되는 공통점은 한 탑 내에 신사리와 범사리를 함께 공양하고 있는 장엄방식이다. 아마도 뇌봉탑 탑신부에도 경전을 넣은 범사리장엄구가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탑이 일찍 도괴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양상은 알 수 없다.

뇌봉탑과 호구탑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身舍利와 法舍利的 공동 봉안, 전홍숙탑 형식의 새로운 신사리장엄구의 제작 등은 전홍숙 발원 身舍利莊嚴의 주요 특징이다. 한편, 뇌봉탑에서는 주요 범사리로서 보협인경을 봉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홍숙 팔만사천탑에서 보이는 범사리신앙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 IV. 錢弘俶 발원 사리장엄의 특징

錢弘俶 발원 사리장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맨 먼저 鄞縣 阿育王塔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 두 번째는 전홍숙탑이라는 독특한 탑 형식이 이 시기에 성립되어 유행한다는 점, 세 번째는 보협인경을 바탕으로 한 범사리신앙과 과거불사리신앙 등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리신앙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점 등이다.

## 1. 鄮縣 阿育王塔과 오월국 전씨 왕조

錢弘俶을 비롯한 오월국의 전씨 왕조는 일찍부터 불교를 후원했으며, 특히 鄮縣 阿育王寺의 阿育王塔을 중시하여 여러 차례 공양하였다. 남조때 혜달이 발견한 鄮縣 阿育王塔은 당시 인도 아육왕이 만든 탑 중의 하나라고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월국의 창건자 錢鏐이 크게 숭앙하였다. 錢鏐는 아마도 鄮縣 阿育王塔을 공양하면서 阿育王과 같은 전륜성왕이 되기를 기원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그가 鄮縣 阿育王塔 이외의 사리공양이나 탑 건립을 했던 예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鄮縣 阿育王塔은 그 이후 전씨왕조의 정신적 기반이자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오월국의 마지막 왕 錢弘俶은 아마도 당시 鄮縣 阿育王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탑을 자신의 팔만사천탑 제작에 모델로 삼았다고 생각된다. 錢弘俶 연간에는 鄮縣 阿育王塔을 모델로 한 錢弘俶塔 형식이 새로운 사리 소탑 형식으로 창안되었고 鄮縣 阿育王塔에 대한 공양도 지속되었다. 錢弘俶이 송에 귀순한 이후, 송에서는 사신을 보내 鄮縣 阿育王塔을 수도로 옮겼다. 錢弘俶은 당시 僧統 贊寧으로 하여금 이 탑을 가지고 송 황실로 가져가게 했다. 이후 鄮縣 阿育王塔은 내내 개봉에 있다가 端拱 2년(989) 開寶寺의 寶塔이 완성된 후 탑 아래에 만들어진 천궁에 봉안되었다.<sup>54)</sup> 開寶寺의 寶塔은 후의 福勝寺塔에 해당하지만, 송대 이후 鄮縣 阿育王塔의 소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며 현재는 소재불명이다.<sup>55)</sup>

송대의 鄮縣 阿育王塔에 대한 신앙은 오월국 시기에 비해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송대 이후 제작된 錢弘俶塔 형식의 사리장엄구나 석탑들은 鄮縣 阿育王塔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기 보다는 錢弘俶의 팔만사천탑 건립 및 사리신앙과 더욱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4) 『佛祖統紀』卷 43, T2035, 49:400b.

55) 鄮縣 阿育王塔을 비롯한 중국의 阿育王塔에 대해서는 村田治郎, 「中華における 阿育王塔」 및 「中國の阿育王塔(1)」, 『佛教藝術』 114(1977), 3~18쪽 참조.

## 2. 錢弘俶塔 형식의 성립과 용도

錢弘俶塔 형식은 10세기 중반경 창안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남조때부터 내려온 鄞縣 阿育王塔이 모델이었다고 추정된다. 鄞縣 阿育王塔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신 소탑이자, 대탑 내에 안치되어 공양된 탑형 사리장엄구이다. 이 탑은 탑신 외면에 새겨진 본생담이 특징인데, 이것은 간다라 및 서역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鄞縣 阿育王塔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으나, 문헌기록에 의하면 薩埵太子本生, 尸毘王本生, 月光王本生, 快目王本生 등의 본생담 부



〈도 8〉 銅塔. 乙卯(955/1015)年. 높이 37.6cm. 江蘇省 蘇州市 瑞光寺塔 출토. 蘇州博物館 소장.

조와 馬耳形 立飾 등을 가진 탑이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錢弘俶塔 형식은 기본적으로 鄞縣 阿育王塔의 형태를 계승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錢弘俶塔 형식은 955년 錢弘俶 八萬四千塔 조성 이후부터 강남지역에서 널리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錢弘俶塔 형식의 새로운 탑형 사리장엄구가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錢弘俶塔 형식이 새로운 身舍利莊嚴具로 채택된 것은 이 형식의 모델이 되는 鄞縣 阿育王塔의 성격이 원래 眞身舍利를 모신 탑형 사리장엄구였던 점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錢弘俶塔 형식의 신사리장엄구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출토품은 江蘇省 蘇州市 瑞光寺塔에서 출토된 銅製 小塔이다 (도 8).<sup>56)</sup> 이 소탑에는 을묘년에 석가여

56) 이것보다 이른 시기의 錢弘俶塔 형식의 소탑으로는 일본 니타콜렉션 소장 의 금동탑이 있는데, 이 탑에는 唐 天祐 2년(905)의 명문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작품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많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일단 제외하였다. 國立故宮博物院, 『金銅佛像特別展圖錄』(臺灣, 1988), 88쪽 참조. 瑞光寺塔 출토 사리장엄구에 대해서는 蘇州市文管會·蘇州博物館, 『蘇

래 진신사리를 봉안하기 위해서 주조된 것이라는 내용의 명문이 탑의 바닥면에 새겨져 있어서, 955년에 신사리 봉안을 위해 제작된 사리장엄 구임을 알 수 있다.<sup>57)</sup> 이 소탑에는 일반적인 錢弘俶塔과는 달리 마이형 입식부와 탑신 사방 모퉁이에 풍경을 달기 위한 고리가 있으며, 조각 양식도 훨씬 세밀하다. 그러므로 이 형태는 錢弘俶 八萬四千塔보다는 그의 모델인 鄞縣 阿育王塔의 형태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의 탑형사리장엄구는 錢弘俶 연간의 虎丘塔, 雷峰塔 등에도 봉안되었으며 송대까지 계속 유행하였다. 錢弘俶塔 형식을 따른 신사리장엄구가 제작된 것으로 미루어, 錢弘俶은 범사리신앙 뿐만아니라 신사리신앙에도 열렬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그의 신사리신앙은 鄞縣 阿育王塔의 진신사리 신앙과도 연결될 것이다.

한편, 錢弘俶의 범사리신앙을 대표하는 錢弘俶 팔만사천탑은 하남성부터 복건성, 멀리는 일본에까지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에서는 그 영향으로 보협인경 신앙이 발전하였고, 소위 ‘寶篋印石塔’이라는 새로운 석탑 형식이 발전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는 錢弘俶塔 형식을 보통 寶篋印塔이라고 불러 왔다. 그러나 이제까지 고찰한 것과 같이 중국의 錢弘俶塔 형식은 보협인경을 중심으로 한 범사리장엄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신사리장엄에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중국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중국 송대 이후 錢弘俶塔 형식을 따른 석탑이나 사리장엄구의 제작은 주로 절강성 일대를 비롯한 강남 지역에서 유행했는데, 이러한 형식의 탑이 모두 보협인경 신앙과 관련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身舍利莊嚴과 관련된 예가 많다. 또한 錢弘俶 팔만사천탑의 유포와 함께 송대 탑지궁에는 錢弘俶 팔만사천탑의 일부가 각종 사리장엄구와 함께 직접 봉

---

州市瑞光寺塔發現一批五代、北宋文物, 『文物』(1979. 11), 21~26쪽; 姚世英·陳晶, 「蘇州瑞光寺塔藏嵌螺鈿經箱小識」, 『考古』(1986. 7), 623~624쪽; 陳玉寅, 「蘇州瑞光寺塔再次發現北宋文物」, 『文物』(1986. 9), 81~83쪽 참조. 瑞光寺塔에서는 3층 탑심에서 사리를 봉안한 진주사리보당, 각종 경전과 경함, 동불, 동제소탑 등이 발견되었으며, 2층 탑심에서도 경전이 발견되었다.

57) 이 탑의 제작연대에 대해서는 오월국설과 북송설이 있는데, 간지명으로 연대가 표기된 점으로 볼 때 오월국 시기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탑의 명문은 蘇州市文管會·蘇州博物館, 위의 논문, 24쪽 참조.

안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석함 위에 소탑을 안치해 놓은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원래 공양소탑으로 사용하다가 지궁 내에서 공양구로서 후대에 안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杭州 飛來峰石窟에는 錢弘俶塔 형식의 소탑을 들고 있는 존상이 등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탑 형식이 강남지역의 불교계에서 계속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錢弘俶塔 형식은 明代까지 석탑이나 사리장엄구의 형식으로 채택되는데, 역시 다른 지역보다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유행하는 지역적 특성을 보여준다.

### 3. 새로운 사리신앙과 장엄의 발전

錢弘俶 연간부터 중국에서 새로 유행하기 시작한 사리신앙은 보협인경을 중심으로 하는 법사리장엄과 과거불 사리신앙 등이다. 또한 이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사리장엄 방식으로서, 하나의 대탑 안에 신사리와 법사리를 함께 봉안하는 장엄 방식이 주목된다.

錢弘俶 발원의 탑에서는 한 탑 안에 지궁이나 천궁에 봉안하는 신사리장엄구 외에 비석이나 石經, 혹은 경전 봉안 등과 같은 법사리장엄이 함께 공양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는 당말까지 탑내에 경전을 봉안하는 법사리장엄의 예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런데 錢弘俶은 경전을 탑내에 봉안하거나, 보협인경과 같이 특수한 경전을 봉안한 팔만사천탑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錢弘俶의 법사리신앙과 장엄은 중국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이다.

중국에서는 8세기경부터 경전을 새겨 만들고 공양하는 석조물인 經幢을 제작하였다. 경전에 대한 공양이라는 점에서 經幢은 일종의 법사리탑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身舍利를 봉안하는 탑에 경전을 함께 봉안하는 것은 오월국, 특히 錢弘俶 시대에 시작되는 새로운 사리신앙과 장엄방식이다.

錢弘俶이 어떻게 법사리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다. 물론 보협인경의 호국적 성격이 錢弘俶에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시의 법사리신앙은 중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리신앙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대외교섭 관계가 주목된다.

우선 한반도와의 관계이다. 10세기초부터 오월국은 후백제와 신라, 고려 등과 통교했으며, 10세기 중엽경에는 고려에서 여러 명의 승려들이 오월국으로 건너와서 유학하였다.<sup>58)</sup> 淸泰 2年(935)에는 오월국의 사문 子麟이 고려, 백제 일본을 다녀갔으며, 고려에서는 李仁日을 사신으로 보냈다.<sup>59)</sup> 오월국 錢弘俶 치세 중에는 당시 전란 중에 없어진 천태종 관련 서적들을 고려로부터 구해왔으며, 이러한 서적과 함께 고려의 고승 체관이 오월국에 입국하였다.

한반도에서는 8세기초부터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하 무구정경으로 약칭)』을 중심으로 법사리신앙이 발전하였는데, 이러한 법사리신앙은 11세기경까지 계속되었으며 中國 遼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sup>60)</sup> 즉 한반도에서 유행하던 법사리신앙이 고려 승려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오월국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당시 한반도의 법사리신앙은 무구정경이 중심이었고, 보협인경 신앙은 거의 발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법사리신앙 자체는 고려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보협인경을 소의경전으로 한다는 점은 오월국 불교, 특히 錢弘俶 연간 불교의 독자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당대에 번역된 보협인경이 이 시기에 새롭게 유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두 번째는 인도 및 서역과의 관계이다. 오월국과 인도 및 서역의 교류에 대해서는 현재 자세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10세기경에는 중국 승려들이 종종 서역에 다녀왔던 것으로 보인다. 開平元年(907) 泉州沙門 智宣은 인도에 다녀오면서 辟支佛骨과 貝葉經 등을 구해왔으며,<sup>61)</sup> 建隆 2年(961) 북송에 온 高昌國 승려 法淵도 역시 辟支佛牙 및 玉器 등을

---

58) 고려와 吳越國 및 宋代의 불교 교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金裕哲 外 共著, 『中國의 江南社會와 韓中交涉』(集文堂, 1997), 239~324쪽 참조.

59) 『佛祖統紀』 卷 42, T2035, 49:391c.

60) 한국의 법사리장엄 및 중국 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周昞美, 『韓國 佛舍利莊嚴에 있어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意義』, 『불교미술사학』 2(2004), 165~196쪽 및 『遼 興宗年間(1031-1055)의 佛舍利莊嚴 研究』, 『中國史研究』 35(2005. 4), 214~218쪽.

61) 『佛祖統紀』 卷 42, T2035, 29:390b.

가져왔다.<sup>62)</sup> 인도에서는 7-8세기경부터 경전을 탑에 매납하거나 다라니를 매납하는 법사리신앙이 유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서역에서 온 승려들에 의해서 오월국에 법사리신앙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승려들에 대한 기록은 매우 단편적이기 때문에 錢弘俶과 이들 외국승려, 혹은 구법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히기 어려운 점이 많다.

錢弘俶 연간에 새로 등장한 법사리신앙과 장엄 방식은 당시 이루어진 고려, 인도, 서역 등 여러 외국 불교계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 아직까지 어느 지역과의 관련성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우며,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당시 등장한 또 하나의 새로운 사리신앙은 과거불 사리에 대한 신앙이다. 唐代까지의 사리신앙은 주로 석가모니의 진신사리에 대한 신앙이 중심이었으며, 과거불 사리신앙은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10-11세기경의 구법승이나 서역승들은 중국에 올 때 과거불의 사리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즉 오월국 시기의 과거불 사리신앙은 당시 서역으로부터 새로 전래된 것이다. 錢弘俶 발원으로 추정되는 호구탑에도 가섭불의 사리가 매납되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당시 과거불의 사리가 상당수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섭불과 벽지불 사리에 대한 인식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과거불 사리신앙과 당시 불교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한 과제이다.

## V. 맺음말

이상에서 오월왕 錢弘俶의 불사리신앙과 장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오월 전씨왕조는 그다지 긴 기간 동안 존속한 왕조는 아니지만 꾸준히 불교를 후원하였고, 특히 마지막 왕인 錢弘俶은 매우 열렬한 불교 후원자로서 사리신앙과 장엄에도 열심이다.

---

62) 위의 책, 卷 43, T2035, 29:395a.

錢弘俶의 사리신앙과 장엄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보협인경을 중심으로 한 법사리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팔만사천탑의 조성이다. 또한 무현 阿育王塔을 모델로 한 錢弘俶塔 형식이 창안되어 법사리장엄과 신사리장엄에 모두 사용되기 시작한 점도 주목된다. 한 탑 안에 신사리와 법사리를 함께 장엄하는 것은 錢弘俶 연간에 중국에서 새로 시작된 독특한 사리장엄 방식으로서 주목된다.

본고에서는 錢弘俶의 사리신앙과 장엄에 대해서 처음으로 신사리장엄과 법사리장엄의 양측면을 고찰하고 그 특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錢弘俶의 사리신앙과 장엄에 대한 연구는 10세기 중반 이후 강남지역의 불교와 사리신앙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며, 당시 불교계 및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錢弘俶이 보협인경을 비롯한 법사리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경로, 錢弘俶 연간의 기타 공양인이 발원한 錢弘俶塔 형식의 사리장엄구들에 대한 분석, 법사리장엄으로 매납된 경전들의 성격 분석, 錢弘俶의 후원을 받은 法眼宗 승려들의 사리신앙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Sarira Worship and Its Remains of  
*Qian Hong-Shu*, the King of *Wuyue*, China

---

Joo, Kyeongmi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tellar6@hanafos.com

**Q**ian Hong-Shu(錢弘俶, 928-988) is the last king of Kingdom of *Wuyue*(吳越國), China and a very famous patron of Buddhism. In this paper, I have researched on the family line and life of *Qian Hong-Shu* and examined on his Buddhist sarira worship. He is the grand son of *Qian Liu*(錢鏐), the founder of Kingdom of *Wuyue*. In 978, *Qian Hong-Shu* pledged allegiance to the Northern *Song* Dynasty and *Wuyue* was absorbed into the *Song* Dynasty.

Though all of his family members supported Buddhism and *Qian Hong-Shu* was the most avid believer in Buddhism. He made small eighty-four thousand stupas to enshrine the scripts of *Arvatathāgatādhiṣṭhāna-hṛdaya-guḥya-dhātu-karaṇḍa-mudrā-nāma-dhāraṇī sutra*(一切如來秘密全身舍利寶篋印陁羅尼經). This *dhāraṇī*

*sutra* is a kind of *Dharma Relic*. Such a deposit of *Dharma Relic* into a pagoda of his offering is a new buddhist relic ritual in China. The cult of *Dharma Relic* was flourished in Korea and in India of that time, so this might be transmitted to China from those countries in the reign of *Qian Hong-Shu*.

He also made new buddhist stupa-like reliquaries, which have four scene of buddhist *Jataka* and horse's ear shaped decorations. This type of reliquaries is known as the imitation of so-called *Asokan* stupa of *Mao-xian*(鄴縣). In China this type was flourished in the south region of *Chang Jiang*(長江) from *Song* to *Ming* Dynasty. However this new type stupa was transmitted to Japan and to Korea.

Key word : 錢弘俶(*Qian Hong-Shu*), 보협인경(*dhāraṇī sutra*), 法舍利 (*Dharma Relic*), 鄴縣阿育王塔(*Asokan stupa of Mao-xian*).